

◆ 금메달 유력 태극전사들



양궁 박성현 핸드볼 오성욱 유도 최민호 펜싱 남현희 수영 백태환 체조 양태영 태권도 손태진 사격 김찬미 사격 진종오 역도 장미란

오늘 오전 첫 '금빛 총성' 울린다

김경욱·김수녕·이은경 등 태극전사들

방송해설 '입심대결'

김찬미·김여울 女 10m 공기소총 출전 유도 최민호 오후 금 향한 한판승 기대

'10·10'을 향한 태극전사들의 금빛 도전이 시작됐다.

9일 오전 사격 김찬미·김여울의 총성을 시작으로 메달 사냥에 돌입한 한국 선수단은 24일 남자 마라톤 이봉주의 생애 마지막 올림픽 역주를 끝으로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 지게 된다.

25개 종목에 도전장을 낸 267명의 태극전사들의 목표는 '10·10'. 10개 이상의 금메달로 전체 순위 10위권에 진입, 스포츠 강국 한국을 다시 한 번 과시한다는 계획이다.

'10·10' 작전은 9일부터 숨가쁘게 진행된다.

오전 9시30분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김찬미와 김여울이 메달 색깔을 결정하기 위한 총성을 울린다. 첫 날 일정이 마무리 되는 오후에는 유도 60kg의 최민호가 기선 제압에 나선다.

본격적인 골드러시는 10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전략종목인 양궁·수영·레슬링·유도 등의 한판 승부가 집중된 10~15일은 선수단 목표 수성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 올림픽 역사상 수영 첫 금메달을 노리는 박태환은 골드러시 붐의 키를 쥐고 있다.

10일 오전 박태환이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금메달을 터치한 뒤 오후에는 세계 최강의 여자양궁팀이 단체전 6연패를 위해 활시위를 겨누게 된다.

남자 양궁 대표팀의 금빛 조준으로 시작하는 11일에는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의 올림픽 2연패를 저지한 유도 왕기춘이 유도 73kg에서 금 메치기에 나선다.

12일에는 박태환이 자유형 200m에 출격하고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진종오도 남자 50m 공기권총 금메달에 재도전한다.

레슬링 정지현(그레코로만형 60kg급)은 대회 2연패를 걸고 매트에 오른다. 13일 호흡을 가다듬은 선수단은 14·15일 태극 공사들의 개인전에서 금메달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체조 남자 개인종합에 출전하는 양태영과 유도 100kg의 장성호도 10위 수성을 위한 분위가 겨우기에 동참한다.

16일 장미란(75kg이상급)이 들어올리는 바벨 무게에 따라 대표팀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배드민턴의 이응대-정재성조는 중국의 전 종목 석권 저지에 나선다.

대회 후반에는 금빛 발차기가 기다리고

■ 광주·전남 역대 금메달리스트

Table listing medalists from various Olympic games (LA 1984, Seoul 1988, Barcelona 1992, Atlanta 1996, Sydney 2000) with columns for name, event, and medal type.

Table titled '한국 역대 올림픽 성적' showing medal counts for various sports across different Olympic games.

있다. 21일 임수정(여자 57kg급)과 손태진(남자 68kg급)에 이어 22일 황경선(여자 67kg급) 그리고 23일에는 차동민(남자 80kg 이상 급)이 태권도 중주류의 자존심을 걸고 '10·10'달성에 도전한다.

트 유승민도 대회 2연패를 향해 만리장성 정복에 나선다. 폐막식이 열리는 24일에는 남자마라톤의 이봉주가 베이징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 14회 런던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세계 스포츠 무대에 등장한 뒤 총 14번의 하계 올림픽에 출전했다.

"후배들이 4년 전 아테네올림픽 준우승 아쉬움을 털고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선수수가 아니라 방송사 해설자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후배들을 힘껏 응원할게요."

여자핸드볼 임오경(37) 서울시청 감독은 8일 베이징 특유의 후텁지근한 날씨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2008 베이징올림픽 핸드볼 경기가 열릴 올림픽스포츠타워를 둘러봤다.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로 짜인 양궁 해설자들도 눈길을 끈다.

SBS는 1996년 애틀랜타대회 2관왕 김경욱, MBC는 금메달 4개(1988년 2관왕, 1992, 2000년 단체전 우승)를 수확한 김수녕, KBS는 1992년 바르셀로나대회 단체전 우승 주역인 이은경이 마이크를 잡는다.

특히 애틀랜타대회 퍼펙트 골드의 주인공인 김경욱은 둘째를 임신해 만사의 몸으로 중계역을 지키는 투혼(?)을 발휘한다.

탁구에서 KBS 해설자로 나서는 안재형 전 대한항공 감독도 베이징대회는 의미가 남다르다.

중국어에 능통하게 하는 안재형은 만리장성 허물기에 나설 후배들의 경기를 해설하고 특히 준결승부터는 원조 한·중 핑퐁클럽 이나 재오진과 공동 해설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림픽 2연패 시도가 좌절된 아테네 대회 남자 유도 73kg급 우승자 이원희(한국마사회)는 KBS 보조 해설자로 깜짝 등장한다.

또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문(배드민턴)과 전병관(역도), 김광선(복싱·이상 KBS), 장지원(태권도), 방수현(배드민턴·이상 MBC), 심관호(레슬링), 황영조(마라톤·이상 SBS)도 뜨거운 장외 입심 대결을 벌인다.

■ 오늘의 올림픽

◇9일(토) (이하 한국시각)

- ▶양궁 = 여자 랭킹라운드(13시) 남자 랭킹라운드(16시·이상 올림픽 그린양궁장)
▶배드민턴 = 남녀 단식(10시·베이징공과대 체육관)
▶여자농구 = 한국·브라질(17시45분·베이징올림픽 농구경기장)
▶복싱 = 75kg급(14시30분·베이징노동자체육관)

- ▲사이클 = 남자개인도로(12시·도로사이클 코스)
▲펜싱 = 여자 사브르 개인전(11시·국가컨벤션센터 펜싱홀)
▲체조 = 남자부(21시·국가실내체육관)
▲여자핸드볼 = 한국-러시아(16시45분·올림픽스포츠타워)
▲유도 = 여자 48kg급, 남자 60kg급(12시·베이징과학기술대 체육관)
▲사격 = 여자 10m 공기소총(9시30분) 남자 트랩(10시) 남자 10m 공기권총(12시·이상 베이징 사격장)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알서가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Real estate auction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and price.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hotels and commercial buildings.

수원지구 건물임대. Commercial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types of buildings and spaces.

생계형, 음식, 호프, 꼬치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Real estate services and listings with contact information.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Real estate services and listings, including a section for '건물매도' (Building Sale).